

<2011년 2월 2일 수요말씀>

전도, 주와 대역사

본 문 마태복음 3장 11-12절

마태복음 9장 28-29절

누가복음 10장 1-2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한국과 몇 나라는 음력으로 설날 명절 기간입니다. 명절 잘 지내요. 선생도 주님과 함께 건강히 잘 지냅니다. 대표로 편지를 해 줘서 잘 받았습니다. 선생에게는 주님과 사는 것이 늘 축제의 명절입니다.

1월에 새로 온 생명들을 위해 주일말씀에 이어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참석하여 반갑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진실로 환영합니다.

새로 온 생명들이 교회에 오도록 거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활의 터전에서 전도한 여러분들도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그 공적이 영원히 가면서 공적대로 받습니다.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들을 손과 발과 입으로 쓰시면서 미리 길러 놓은 생명들을 노방이나 생활지에서 만나게 하시어 이끌어 오셨습니다.

◆ 왜 여러분들을 오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모두 전심으로 듣고 이 해에 꿈을 이루고, 인생의 꿈과 이상을 영원히 이루기 바랍니다.

- 불안하고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영원한 희망이 없이 사는 삶과 곤고한 인생을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허무하고 무가치한 곳에서 고통을 받고 사는 데서 벗어나고, 인생의 헛된 것으로 수고하는 데서 벗어나

영원한 희망을 이루면서 기쁨과 이상의 세계에서 살라고 예수님이 모두 이끌어 오게 하셨습니다.

-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날을 보시고 급히 불러내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 더 고생할 것을 아시고 그대로 두면 정말 안 되기에 여러분들의 때가 되어 불러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통해 부르실 때 그때 정말 와야 됩니다. 그때 안 오니까 고통만 더 받게 되고, 인생의 곤고함만 더 쌓이게 되고, 허무한 것과 헛된 일들에만 더 얽히게 되고, 세상 진흙과 늪에 빠져 각종 고통을 겪게 됩니다.

***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인간은 전능하신 신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지 않기에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이나 각종 재난이나 죽음의 상황을 마음대로 피하거나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의 약한 육체를 가진 자들이니 앞날에 어떤 일이 순간 닥칠지 모르고 살고, 하루 만에 닥칠 일들도 모르고 무지 속에 삽니다. 신이 아니니 신의 말씀을 듣고 미리 알고, 미리 피하고, 미리 행하라고 불러오셨습니다.

*** 인간은 신이 아니지만, 신의 말씀을 잘 듣고 살면 인간으로서 신이 되어 살 수 있습니다.** 신의 말씀을 듣고 신이 되어 살면 사망과 고통과 죽음을 벗어나서 살게 됩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을 면하고 살았습니다. 소돔 땅의 롯과 그 식구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씀을 듣고 불 심판을 면하고 살았습니다. 현재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하나님은 만물과 지구와 인간들을 각각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고로 목적을 이루면서 땅에서 살 동안에도 잘되고 형통하고, 육신의 삶이 끝나면 그 영혼도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살라고 모두 불러서 오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그 사람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영상1>

① 노방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버스 안에서 주님과 전도하는 모습
(세계 각 나라 실제로 전도하는 모습

: 실제 모습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것만 표현하면 됨.)

<자막과 설명>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들을 손과 발과 입으로 쓰시면서 미리 길러 놓은 생명들을 노방이나 생활지에서 만나게 하시어 이끌어 오셨습니다.

② <자막> 왜 불러오셨을까?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머리에 이고 사는 자의 모습/ 곤고함에 빠져 사는 자들의 모습/ 헛된 것에 수고하며 사는 자들의 모습 등 설교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

-전도자가 주님과 함께 이들을 이끌어 생명권으로 전도해 오는 모습

<동시에 자막과 설명> 불안하고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영원한 희망이 없이 사는 삶과 곤고한 인생을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허무하고 무가치한 곳에서 고통을 받고 사는 데서 벗어나고, 인생의 헛된 것으로 수고하는 데서 벗어나 영원한 희망을 이루면서 기쁨과 이상의 세계에서 살라고 불러오셨습니다. 각자 인생의 앞날을 보시고 급히 불러내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 더 고생할 것을 아시고 그대로 두면 정말 안 되기에 여러분들의 때가 되어 불러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영체가 나오며 다음 자막

<자막> 그러나 인간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 각종 재해(지진, 홍수 등), 각종 사고, 아픔, 차 사고, 화재가 일어나는 모습

<자막과 설명> 곧 인간은 하나님과 예수님 같지 않기에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이나 각종 재난이나 죽음의 상황이 닥쳐도 알지 못하여 피하지 못합니다. 앞날에 어떤 일이 순간 닥칠지 모르고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

<동시에 자막과 설명> 고로 신의 말씀, 곧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알고, 미리 피하고, 미리 행하여 복을 받고 살라고 불렀습니다. 신의 말을 듣고 행하면 신이 되어 미리 죽음과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만 방주에 타서 홍수 심판을 면하는 모습

<동시에 자막과 설명> 노아는 유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을 면하고 살았습니다.

-롯과 그 식구들만 천사의 말을 듣고 소돔 땅을 벗어나 불 심판을 면하는 모습

<동시에 자막과 설명> 롯은 유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을 듣고 소돔 땅에서 나와 불 심판을 면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서 사는 모습

<자막과 설명> 하나님은 만물과 지구와 인간들을 각각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고로 목적을 이루면서 땅에서 살 동안에도 잘되고 형통하고, 육신의 삶이 끝나면 그 영혼도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살라고 모두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시대마다 선지자나 중심자를 세우시고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의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시는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육신을 쓰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그로 인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2010년 동안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왔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후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쓰고 오기 전 하늘에 계셨을 때의 성자의 본체, 곧 전능하신 영체로 나타나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각자의 때에 불러 복음을 듣게 하고 행하게 하여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고 계십니다.

*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 주님이 쓰시는 청지기들입니다. 예수님

만이 구세주요, 메시아입니다. 다만 인간은 그의 사명자들로서 구원받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재림주이십니다. 2000년 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초림 때도, 영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 때도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사람은 역사에 쓰여지는 청지기로서 오직 전능하신 메시아를 만나게 해 주는 사역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지은 죄를 용서받고 자유함을 받아 생명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의를 쌓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천국에 가서 영원히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의’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에게 영광 돌리며, 그를 사랑하며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아멘.

<영상2>

① 초림 때 예수님의 육이 와서 행하시는 모습

그 후 전능하신 영체로 행하시는 모습

<자막과 설명> 예수님 외에는 구세주가 없습니다. 초림 때도 성자 예수님이 행하셨고, 재림 때도 성자 예수님이 주인 되어 행하십니다. 다만 초림 때는 육의 몸으로 행하셨고, 재림 때는 영의 몸으로 행하십니다.

② 많은 사람들 - 사명자의 손에 이끌려 -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

<자막과 설명> 사람은 주님 역사의 청지기요, 예수님께 가게 해 주는 사역자들입니다.

<자막>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만나야 한다.

그리고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고 생명권으로 나와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모두 이뤄야 할 ‘구원’이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더 알기 쉽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영상3> 예수님 출현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나 예수가 내 사랑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데려왔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다. 오늘은 특히 새로 온 자들을 위해서 말하니 잘 듣고, 또 나와 같이 실천하자.

너희를 전도해 오기 전부터 나는 너희를 가정에서, 삶 속에서 길렀다.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서 내게 오도록 했다. 그러나 전에는 오지 않았다. 이제 내가 이곳 섭리세계 전도자를 통해 너희를 데려왔다. 너희는 여기서 구원을 이루며 나 예수와 함께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루자.

* 농부가 곡식을 거둬들일 때는 이미 밭을 갈고 퇴비를 하고 땅을 기름지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씨를 뿌리고 곡식이 다 클 때까지 잡초를 뽑아내고 땀 흘려 가꾸어 곡식이 다 익은 후에 추수꾼들과 가서 베어 온다. 이와 같이 나 예수도 너희를 그같이 기르다가 때가 되었을 때 나의 사랑하는 생명의 추수꾼들과 같이 너희를 하늘 생명의 창고에 넣고 베어 왔다.

곡식을 곡간에 들이기 전에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내보내어 불사르게 한다.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떨고 키질을 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 이제 너희는 ‘교회’라는 타작마당에서 내 사랑하는 자를 통해 가르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너희 마음속의 쭉정이가 같은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행위들을 모두 회개하여 버려야 된다. 그래야 알곡이 되어 구원받아 나의 나라

에 들어온다.

회개는 내 아버지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라.
‘말씀’을 들으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너희가 죄의 몸이 되지 않고 의의 몸이 되어 자유롭게 되
어 의의 알곡이 된다.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쪽
정ियो, 믿고 회개하고 나 예수와 살면 알곡이다.

<영상4>

- 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퇴비하고, 정성껏 기른 후에 곡식
이 다 크고 나서 추수하는 모습

<자막과 말씀> 농부는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 미리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퇴비하고, 정성껏 곡식을 기른다. 그렇게 기르고 곡식이 다 성
장하면 추수하여 거둬들인다.

- ②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기르시는 모습

그리고 삶 가운데 사고가 날 때마다 예수님이 지켜 주시는 모습
(각종 모습 표현 : 원본 참고, 그리고 그밖에)

<자막과 말씀> 나 예수도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기르고 생명을 보호
해 주며 세상에서 기르다가 때가 되어 이 역사로 데려왔다.

- ③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는 모습

(현대식 타작 법 / 재래식 타작 법)

그리고 알곡만 곡간에 들이는 모습

<자막과 말씀> 곡식을 곡간에 들이기 전에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여
알곡과 쪽정이를 가려내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내보내어
불사르게 한다.

- ④ 교회에서 예수님이 설교자를 통해 말씀 전하시는 모습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

<자막과 설명>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기계로 썰고 키질을 하면 알곡
과 쪽정리로 갈리듯, ‘교회’라는 타작마당에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

명의 알곡과 쪽정리로 갈린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를 통해 가르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너희 마음속의 쪽정이 같은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행위들을 모두 회개하여 버려라. 그래야 알곡이 되어 나의 나라에 들어온다.

*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 말해 주겠다.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 더러움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드레스를 입는 것같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겠다.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깨끗한 나라다. 고로 죄 있는 영혼은 하늘나라에 못 온다.

하나님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제일로 큰 죄다. 진실로 믿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참된 구원을 받아 세상에서도 그 행위대로 의인으로서 대함을 받고, 육신의 생이 다한 후에 그 영이 천국으로 오게 된다.

죄가 있으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세상에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죄에 대하여 배우고 찾아보면 온통 죄투성이다. 죄 가운데서 음식 먹듯이 죄의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 문제는 죄가 아니라 회개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죄 없는 자가 되어 나의 의인의 회중에 거하게 되어 생명의 알곡이 된다.

너희 영과 육을 구원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고 내가 이 시대에 전하는 말씀을 듣고 너를 죄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 ‘회개’는 죄에서 나오게 하고 의인이 되게 한다.

무엇을 회개하려느냐. 세상에서 자기 주관과 자기 식의 삶으로 행하면서 살던 모든 마음과 행위를 버려야 한다. 마치 옥토 밭에서 가시나무를 뽑아내 버리듯, 너희 몸과 마음에서 자기 주관으로 살던 것들을 다 뽑아내고 나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리하면 그 행위가 의가 되어 너희를 따르게 되고, 너희가 복을 받는 데 그릇이 되고 원인이 된다. 그리고 네 영이 네 육과 함께 의롭게 되어서 네 육의 의로운 행위의 대가로 영원토록 의와 사랑의 나라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게 된다.

‘의’란, 전능하신 내 아버지를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나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요, 너희가 나 예수의 말을 지키고 선하게 사는 것이다. 세상에서 나와 내 아버지를 떠나 자기 생각대로 살면 결국 그 영혼은 영원히 그 죄값으로 암흑의 세계, 영원한 고통의 세계 지옥으로 간다.

너희는 지옥세계가 얼마나 크고 깊은 곳에 있는지 아느냐.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나 예수가 말하기 전에 너희 생각이 어느 정도 맞는가 생각해 보지 않아서 감이 안 오느냐. 학교에서, 세상에서 지옥에 대해 안 배워서 모를 것이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지구에서 너희가 보는 별의 세계에 가는 거리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에 암흑과 고통의 세계 지옥이 있다. 영으로 가면 금방 간다.

너희 중에 내가 지옥을 전학시켜 주고 모두에게 말해 주라고 하여 지옥을 보고 온 자들이 있다. 그들이 지옥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을 너희는 들었을 것이다. 지옥도 내가 허락해야 보고 올 수 있다.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갈 수 있다면 지옥도 천국도 너희 마음대로 가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내가 허락해야 가서 보고 올 수 있다. 몇 사람에게 보여 주는 것은 모두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함을 알고 나의 말씀을 믿고 살라 함이다.

지옥은 한 번 가게 되면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곳에서 수천 가지의 고통을 갖가지로 다 받는다.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가 보낸 메시아 나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의롭게 살지 못하면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지옥같이 괴로운 고통들을 받아 봤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지옥으로 육신이 세상에서 받은 지옥의 고통이다. 곤고, 허무, 자기 학대, 번민, 걱정, 근심, 억울함, 분노, 배신을 겪으며 인생의 고통을 받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을 받으면서 “이것

이 지옥이다.” 한다. 그러나 그 고통은 영으로 가는 영원한 지옥과 같은 고통은 아니다.

너희는 육적 생지옥의 고통도 당하지 말아라. 영혼으로 가는 영원한 지옥에도 가지 말아라. 세상에 살 때, 바로 지금 나 예수를 믿고 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에게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그를 사랑하면서 살자. 또한 세상에서 육신이 살 동안에 나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상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인생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뜻있게, 즐겁게 나의 축복을 받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 영혼을 나의 나라 천국에 거하게 하여라. 이렇게 살라고 너희를 불러오고 데려온 것이다.

창조자 내 아버지와 나 예수 외에 우상과 신상들을 믿거나 자기 좋은 대로 살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죄를 자복해도 그 영혼은 결단코 구원받지 못한다. 어떤 종교에서는 구원받고 좋은 세상에 간다고 하는데, 자신들의 생각이다. 하나님과 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지 않고 그로 인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영계를 거쳐 사망으로 가게 된다. 영계에서도 영혼으로서 다시 전능자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고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의의 영이 되고, 오랫동안 의를 쌓아 온전한 영이 되어야 겨우 구원받아 하늘나라로 올 수 있다. 그러나 육이 세상에서 살 때 이미 기회를 잃었기에, 영으로 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영상5>

① <자막>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

-신부가 결혼식 전날 깨끗이 씻는 모습

그리고 결혼식 날 깨끗한 드레스를 입는 모습

<자막과 말씀>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 더러움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드레스를 입는 것같이 회개는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그 영이 천국에 가는 모습

<자막과 말씀> 나의 말씀을 듣고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깨끗해진 자의 영은 알곡 영으로서 천국에 간다.

② <자막> 누구든지 이뤄야 할 구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죄에서 나오게 해야 된다.

회개는 죄에서 나오게 하고 의인이 되게 한다.

(→ 이 자막에 맞는 화면 이용)

③ <자막> 그렇지 못한 자의 영은...



<자막과 말씀>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지 않고, 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영혼은 어둠과 흑암 속 깊숙한 곳에 가게 된다. 지옥세계로 가는 거리만 해도 지구에서 별 세계를 가는 것보다 더 멀다. 그 길을 지나 흑암 속 깊은 곳에 가게 된다.

④ 예수님이 간곡히 말씀하시는 모습

<자막과 말씀> 너희는 육적 생지옥의 고통도 당하지 말아라. 영혼으로 가는 영원한 지옥에도 가지 말아라. 세상에 살 때, 바로 지금 나

예수를 믿고 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에게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그를 사랑하면서 살자. 또한 세상에서
육신이 살 동안에 나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지상에서 마음의 천
국을 누리면서 인생 가치 있게 나의 축복을 받고 살아라. 그리고 너
희 영혼을 나의 나라 천국에 거하게 하여라. 이렇게 살라고 너희를
불러오고 데려왔다.

마치 길을 모르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나 예수가 오늘 너희
에게 인생길을 가르쳐 주었다.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조용히 말해
주듯, 어떻게 나 예수를 믿는지 가르쳐 주었다.

모두 타작마당에서 쭉정이 겨를 벗겨 낸 알곡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
여 자기 허물과 죄와 악의 행실들을 벗겨 내 버리자!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이 기쁨의 세계로 전환되어 영도 자유롭게 되어 나의 기쁨과 이상의
세계에 참여하여 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 예수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이끌어 왔으니 인생 일생
끝까지 내 품을 떠나지 말아라. 내 품을 떠나면 더 고통의 세계로 가서
언제 다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예정이 없다. 너희 육도 영도 환난이 일
어나기 전에 불러왔다. 일찍 온 자들을 따라서 부지런히 나 예수를 따라
와라. 나는 나의 말을 듣는 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할 것이다.

* 나는 신이다. 너희 인생은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은 시간
이 전혀 없어도 시공을 초월하여 행한다. 신과 인간은 이같이 다르다. 이
해가 안 되느냐. 이해시켜 주마.

너희는 어떤 사람에게 설교를 해 주려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간
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신이라서 1시간, 2시간을 안 줘도 모두에게
다 말씀을 해 준다. 일순간 너희 뇌에 나의 말씀을 저장시켜 번뜩 깨닫게
해 버린다. 이해가 되느냐. 그동안에도 너희 각 사람에게 내가 하고픈 말
을 너희 뇌에 보내어 깨우쳐 주었다.

한 번 더 말해 주겠다. 가령 너희가 1000리를 걸어가는 데 10일이 걸린다 하자. 나 예수는 신이라서 1초도 안 줘도 그 위치에 가 있다. 신과 인간은 이같이 다르다.

오늘 너희 선생이 ‘신과 인간은 다르다.’ 하면서 인간은 신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것을 깨우쳐 주었다. 인간은 ‘신’이 아니고 ‘육’이라서 미리미리 해야 환난도 피하고, 할 일도 하고, 나 예수의 재림도 맞을 수 있다.

전능자 하나님과 나 예수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너희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너희는 육신 쓴 신이 된다. 그 말씀을 행하면 너희 영이 하늘나라 영으로 변화되어 하늘 신이 되어 천국에 가게 된다. 너희는 신이 아니라서 순간 못 하고, 나는 신이라 할 수 있다. 고로 너희도 사람으로서 신이 되려면 전능자 내 아버지의 말씀과 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인간으로서 신이 된다. 사람도 신이 되면 불가능한 것을 하게 된다.

너희를 하늘의 신이 되게 하기 위해 세상에서 데려왔다. 신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면 인간으로서 신의 삶을 살게 된다. 전능자 나 예수가 생명의 말씀을 하니 듣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행하여라. 그러면 너희 영이 하늘나라 형상으로 변하여 신이 되어 천국에 오게 된다. 너희 육도 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세상에서 신의 삶을 살게 되어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진다.

<영상6>

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인간은 천 리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은 한 번에 가시는 모습)

<자막과 말씀> 너희 인생은 시간이 있어야 행하지만, 나 예수는 신으로서 시간이 전혀 없어도 시공을 초월하여 행한다. 인간은 신이 아니니 나 예수에게 배우고 미리 알고 행하여 위험도 피하고 재난도 피해야 한다.

② -말씀을 듣는 모습/ 말씀을 들으니 주님이 그 속에 임하시는 모습
<자막과 말씀> 말씀은 곧 나 예수다. 고로 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대로 행하면 사람으로서 신의 삶을 살게 된다. 내 말을 듣고 행하여
라. 그러면 신이 된다.

③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 (시간에 쫓기지 않고, 미리 하고, 빨리
하고, 번뜩 생각하며 행하는 모습)

-말씀을 듣고 행한 것에 따라 영혼이 변화된 모습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모습

<자막과 말씀> 너희를 하늘의 신이 되게 하기 위해 세상에서 데려왔
다. 신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다.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행하고
살면 인간으로서 신의 삶을 살게 된다. 전능자 나 예수가 생명의 말
씀을 하니 듣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행하여라. 그러면 너희 영이 하늘
나라 형상으로 변하여 신이 되어 천국에 오게 된다. 너희 육도 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세상에서 신의 삶을 살게 되어 이 땅에서도 천국
이 이루어진다.

나 예수가 이곳에서 너희를 가르치고 행하니 어떤 악평자의 말도 듣
지 말고 어떤 유혹의 글도 믿지 말아라. 이곳을 악평하는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자들은 악인들이요, 나 예수를 모독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영은 흑
암에 가 있고, 그 육도 사망권 속에서 살고 있다. 어떤 유혹도 받지 말고
나 예수의 말만 믿고 행하여 나와 온전히 하나 되어 올해 여기서 대역사
를 이루자!

너희가 세상에서 돌아온 것이 대역사다. 세상에서 내 품으로 돌아왔
으니, 이제 너희를 ‘말씀’ 으로 만들고 그 말씀대로 나 예수와 함께 행
하는 것이 너희로서 대역사니라.

너희 형제들을 나와 함께 하나님과 나 예수의 앞으로 인도하자. 너희
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너희 옆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 내어 구원하자.

나의 말을 지키고 행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축복하리라.
너희를 사랑하는 주 예수다.

<영상7> 예수님 인사

“너희가 세상에서 내 품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너희를 ‘말씀’으로 만
들고 그 말씀대로 나 예수와 함께 행하자. 이것이 대역사다!”